

나주 중소기업 해외 수출길 '활짝'

세계한인경제인대회 600만달러 수출입 협약
'완도물산조합법인' 김밥용 김 2만 박스 물량

나주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새로운 해외 수출길을 열었다. 17일 나주시에서 따르면 최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제24차 세계한인경제대회에서 관내 기업인 완도물산영어조합법인과 미국 SSS corporation 간 600만불 규모의 수출입 협약을 체결했다.

세계한인경제대회는 전 세계 한인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국의 경제발전과 무역증진, 국내 중소기업·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유관기관과 상생발전을 모색하는 자리다.

나주시 방문단과 함께 이번 대회에 동

행한 관내 중소기업은 ▲좋은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골든힐 ▲완도물산영어조합법인 총 3개 업체다.

이 가운데 수출입 협약을 체결한 완도물산영어조합법인은 조미김 생산 회사로 자사 브랜드 '새우표' 출시를 통해 2011년 나주스타기업, 2012년 광주·전남중기청으로부터 수출유망기업으로 선정됐다.

600만불 규모의 김밥용 김 2만 박스를 미국SSY에 수출하게 된 완도물산은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통해 해외 시장에 진출한 나주시 관내 최초 기업이 됐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세계 속 대한민국



미국 네바다주에서 열린 제24차 세계한인경제대회에서 나주 완도물산영어조합법인과 SSS corporation이 600만달러 규모의 수출입 협약을 체결했다. /나주시 제공

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판로 개척을 지원 하는 뜻깊은 행사"라며 "이번 대회 참가와 구체적인 협약 성과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 해외 시장 진출과 판로확대, 잠재된 국내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한국테크노파크 진흥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수산물, 한국환경공단, 나주시 등 7개 기관 및 지자체를 통해 선발된 국내 우수 중소기업 70여개사가 참가했다. /나주=이재순 기자

'장흥표고' 산림문화박람회서 인기몰이

향토음식·가공제품 등 전시
홍보관서 20일까지 운영

2019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에서 '장흥 표고버섯 홍보관'이 관람객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17일 장흥군에 따르면 버섯산업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장흥표고버섯홍보관은 산림문화박람회 통합홍보관 내에 자리하고 있다.

홍보관에는 원목재배 표고버섯을 이용한 향토음식, 가공제품, 재배 기자재 등을 전시하고 표고버섯 토피어리 포토존을 설치해 특색 있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장흥여성단체협의회에서 표고차, 표고전, 표고잡채, 표고떡, 표고식혜 등 표고음식 시식코너를 운영해 관람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장흥군은 1992년 산림청으로부터 표고버섯 주산지로 지정돼 건표고 기준 전국 물량의 30%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소고기, 키조개와 조화를 이루는 '장흥삼합' 재료로도 활용돼 큰 인기를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장 내에 있는 장흥 표고버섯 홍보관이 관람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장흥군 제공

끌고 있다. 반송언버섯산업연구원 박사는 "홍보관 운영이 표고버섯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장흥군 표고버섯의 소비촉진과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9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장흥=이옥현 기자

장성 차로이탈 경고장치 지원 내년부터 화물차 장착 의무화

장성군이 올해 말까지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도로 주행 중인 차량이 차선을 이탈할 때 경음을 발생시켜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준다.

2017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9m 이상의 승합차 및 중장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는 내년부터 설치가 의무화 돼 미장착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차주가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한 뒤 서식을 갖춰 이를 군에 신고하면 국·군비로 장착비용의 8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수혜자의 자부담은 10만원 선이다.

장성군은 관내 등록돼 있는 총 259대의 대상차량 가운데 200대를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17일 "연말까지 미루면 보조금 신청이 몰려 지급이 늦어질 수 있고 제작사의 제품 재고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보조금을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전일용 기자

'시민중심' 빛가람 페스티벌 개막

오늘부터 이틀간 빛가람동 호수공원 일원

제5회 빛가람 페스티벌이 18일부터 이틀간 나주 빛가람동 호수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혁신도시 16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상생을 위해 개최되는 페스티벌 개막식은 18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주무대에서 플래시몹 10여개 팀 경연을 시작으로 시·도지사, 이전 공공기관장,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이 참석하는 행사에 이어 빛가람 시민노래자랑이 펼쳐진다.

시민 노래자랑은 나주시민 및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다문화 가족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사전 접수를 받아 예심을 거쳐 본선에서 경합을 펼치게 된다. 축하 공연으로 유명가수 체리블랫, 이용 등이 공연할 예정이다.

19일 오전 10시에는 '빛가람 호수공원 건강걷기대회'가 열린다. 2시간 동안 2.4km 구간에서 펼쳐지며 4개 구역별로 나눠 경품 추첨과 댄스, 폼바, 버스킹 공연 등이 진행된다. 100여 가족을 선착순 접수하고 있

다. 참가 가족에게는 소량의 지역 농산품이 증정된다.

또 4차 산업혁명과 신성장 산업의 시범 행사로 '드론 체험'이 2일간 운영되며, 사전에 100여명의 접수를 받아 드론을 조립하고 조정하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친환경 에너지 e-모빌리티관에서는 미래친환경 자동차인 수소 및 전기자동차, 튜닝 부품카, 키보드 등 전시와 스마트·레저용 카드 체험을 할 수 있다. 관람객이 즐길 수 있도록 지역 업체가 개발한 게임 콘텐트로 스포츠 스노보드 게임과 비행시뮬레이션 등 VR·AR 체험도 할 수 있다.

운영주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장은 "혁신도시 시진2와 융합할 수 있도록 화합, 에너지, 4차 산업혁명, 지역 혁신성장을 콘셉트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지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노래자랑, 걷기대회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소통과 화합 축제로 치러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함평 먹거리, 남도음식잔치서 호평

생비빔밥 단품요리 부문 대상·우수상 차지

함평군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생비빔밥이 남도음식문화 잔치에서 호평을 받았다.

17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 대표로 출전한 생비빔밥 음식점 '정(鄭)경복궁'은 최근 폐막한 제26회 남도음식문화잔치 단품 요리 부문에서 대상인 전남지사상을 차지해 상금 150만원을 받았다.

이와 함께 생비빔밥 음식점 '해월축산'은 일반부문에 우수상을 받아 상금 50만원을 차지했다.

정 경복궁은 부상으로 받은 상금 150만원을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에 전액 기탁했다.

"남도 음식 명인" 임화자씨가 전시한 진설 음식 약과와 함평전지한우 개강정육포 등도 관람객들의 관심을 받았다.

함평군관계자는 "남도음식문화잔치를 통해 함평의 우수한 먹거리가 전국 어



전남도지사상 1,500,000 원

디든 잘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번 대회에서 발굴된 메뉴들을 각종 홍보물에 수록하고 다국어 홍보 책자로도 제작·배포해 지역 음식 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함평=윤예중 기자

클릭! 고향 속으



화순 하반기 지역치안협의회

화순군은 최근 화순경찰서 적벽마루에서 '명품 화순, 행복한 군민'을 위한 하반기 지역치안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수사구조개혁 추진 경과보고를 듣고 관계 기관 협조사항 토의 순으로 이어졌다. 화순군은 '범죄예방으로 행복한 군민 만들기', 화순교육지원청은 '학교 내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화순경찰서는 '스마트&공동체 치안', '사회

적 약자 보호활동' 등의 추진사항을 보고했다. 이어 기관장들은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캠페인 서약식을 열고 동참을 약속했다. 구중근 군수는 "모든 기관이 협력해 치안을 강화하고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며 "안전하고 행복한 화순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서호형 기자



함평 제2회 도시재생 버스킹 공연

함평군은 최근 읍내 중앙길 특설무대에서 '제2회 다함께 차차차 중앙길 도시재생 버스킹 공연'을 개최했다.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에서 주최하고 함평 도시재생지원센터, 함평군이 주관한 공연은 200여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댄스, 통기타, 모듬북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마련됐다. 특히 나산 실용예술중학교 학생들이

고적대 페어이드를 통해 최근 선정된 '국도교통부 2019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축하하면서 의미를 더했다. 양상길 추진위원장은 "낙후된 도시 재생을 기념하면서 주민 간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는 귀한 자리였다"며 "도시 재생 뉴딜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 수렴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윤예중 기자



담양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거리상담 캠페인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최근 담양여자중학교에서 찾아가는 거리상담 릴레이 캠페인을 개최했다. 캠페인은 지난 8월 창평중학교를 시작으로 담양공업고, 봉산초고 등 6개교에서 진행됐다. 찾아가는 등굣길 캠페인은 3월과 9월, 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위기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내 또래상담자와 학생부 학생들이

학교폭력예방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폭력 예방 구호를 외치는 등 학교폭력 예방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또 학교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전화 1388 홍보했다. 센터 관계자는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전한 또래문화를 형성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장동원 기자